



# KC **GREEN** HOLDINGS

2017 JANUARY

KC NEWS LETTER VOL.87

## 목 차

---



1. **KC Network, 2017년도 시무식 개최**
2. **KC그린홀딩스 2017년 동계 인턴 프로그램**
3. **KC환경서비스 경영관리팀 소개**
4. **KC코트렐, 일본 고객사 방한**
5. **KC코트렐, 고성하이 탈황설비 수주**

# KC그린홀딩스(주), 2017년도 시무식 개최

지난 1월 2일, 서울 상암동 본사 12층에서는 KC그린홀딩스(주)와 KC솔라에너지(주)의 시무식이 개최되었다. KC그린홀딩스 이태영 대표이사, 김정완 부사장을 비롯하여 모든 임직원들이 모여 2017년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KC그린홀딩스 모범사원 표창이 있었다. 작년 한 해 동안 KC그린홀딩스의 전략경영팀의 일원으로서 힘써준 윤제연 선임이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후 이태영 대표이사의 신년사가 있었다. KC그린홀딩스가 출범한 지는 오래되었으나, 실제로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니 문화를 새롭게 정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지금까지의 문화를 탈피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같은 날, KC코트렐(주) 서동영 사장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기술을 익히고 개발하며, 융합과 세상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만들어 가자”고 말하며, KC코트렐의 빛나는 2017년을 기원하였다.

마지막으로 KC그린홀딩스(주)에서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박기서 부사장의 장기 근속 꽃다발 수여식이 있었다. 오랜 시간 KC그린홀딩스와 함께 한 박기서 부사장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박수가 쏟아졌다. 이후 모든 임직원들이 악수를 하며 신년 인사를 하고, 굳은 의지를 다졌다. KC그린홀딩스 및 모든 관계사 임직원들의 밝은 한 해를 기대하는 바이다. (끝)



# KC그린홀딩스 2017년 동계 인턴 프로그램

2017년이 되자마자 KC그린홀딩스에 새로운 얼굴들이 늘어났다. 바로 2017년 KC그린홀딩스 동계인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다섯 명의 인턴들은 전부 전략경영팀으로 배속되어, 두 달간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현장 방문 및 실무 경험을 할 예정이다.

우선 일주일 동안 KC그린홀딩스 및 관계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한 인턴 직원들은 11층 전략경영팀 자리에 배치되어 첫 번째 과제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과제는 각각의 인턴들에게 다른 주제가 주어지고, 이를 KC그린홀딩스의 사업과 연계하여 신사업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환경산업이라는 다소 생소한 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턴직원들은 모두 최선을 다해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앞으로의 주요 계획은 1박 2일간의 전주-여수-창원 사업부 방문과, 두 번째 개인과제 발표, 그리고 마지막 팀 프로젝트이다. 모든 인턴 직원들이 KC그린홀딩스에 좋은 이미지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할 예정이다. (끝)





# KC환경서비스(주), 경영관리팀 소개

KC환경서비스(주)는 지난 2016년 12월 28일, KC한미산업(주) 및 KC에코에너지(주)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단일회사 규모(인원 수 177명, 2016년 매출액 합계 452억원)에서도 명실상부한 한국의 대표 WtE(Waste to Energy)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새로 취임한 이강욱 대표이사는 KC환경서비스의 전체 조직을 정비하고, 상암동 본사에 경영관리팀을 새로이 신설하였다.

KC환경서비스 경영관리팀은 박경식 팀장을 필두로 향후 합병에 따른 통합 PMI 작업, 지속적인 기업 혁신 작업, 경영 관리, 신규 투자 검토 등 전반적으로 전체 회사에 관련된 총괄적인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KC환경서비스 경영관리팀은 박경식 팀장, 임은영 부장, 그리고 이현우 대리로 구성되어 있다.

2월 1일 새로이 입사한 이현우 대리는 “전 회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직원이 되어, KC환경서비스의 미래를 빛나게 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향후 2020년 2,000억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합과 혁신을 끊임없이 지속하는 KC환경서비스를 기대하는 바이다. (끝)



# KC코트렐(주), TUP Project 일본 고객사 방한

지난 1월 19일 TUP(Toranomon Underground Passage Shield Work) Project의 일본 고객인 모리빌딩, 메트로개발, 오바야시건설, 카와사키상사, SEC가 KC코트렐(주)을 방문하였다. KC코트렐 안성공장에서는 오광한 공장장, 정재선 상무, 박강희 팀장, 서동수 팀장, 박성민 과장이 참여하여 미팅을 주도하였다. 일본 고객사들이 본사에 도착하자, KC코트렐의 회사 소개를 포함하여 약 3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하였다.

다음 날 5곳의 일본 고객사는 KC코트렐 안성공장을 방문하였다. 이 때에 안성공장을 둘러보고, 데모 제품 검사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소한 지적 사항은 있었으나, 안성공장이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안전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본 TUP Project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서울 인사동에서 오광한 공장장과 저녁을 먹으며 일본 고객사들의 본사 방문은 종료되었다. (끝)



# KC코트렐(주), 고성하이 탈황설비 수주

KC코트렐(주)은 지난 3년여에 걸쳐 진행된 고성하이화력 1,2호기 탈황설비 건설공사의 개찰 결과 2017년 1월 17일자로 “우선협상자”에 선정되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SK건설(주)이 EPC社로 참여하며 당사는 SK건설(주)에서 발주한 고성하이화력 1,2호기 탈황설비 건설공사 건에 대하여 계약금액 99,184,800,000원(VAT포함)으로 수주하였다. 앞서 지난 2015년 강릉안인화력 탈황설비 수주에 이어 대형 탈황설비를 수주함으로써 시공 능력을 다시 증명할 수 있게 되었고 국내외 대규모 발전소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 3조 7,000억원을 투자해 건설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자화력발전소로 생산 전력량은 국내 전체 발전용량의 2%에 달한다. 따라서 발전소가 준공되면 국가 전력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조감도>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공사부지>